

어느 한 젊은 교수의 기우

정철영

서울대 농업교육과 교수



고등학교 교사로 있는 친구에 의하면 교사와 교수의 차이는 90도 차이라고 한다. 즉, 고개를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서 보면 교수의 “수”는 교사의 “사”가 되고, 왼쪽으로 90도 돌려서 보면 교사의 “사”는 교수의 “수”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교사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교육만을 이야기하나, 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등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교수의 역할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교수의 명칭에 교수의 세 가지 역할 중에서 교육의 “교”만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교수의 역할에 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소보다는 대학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일까? 그보다는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본인의 전

공영역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써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역할로서의 연구와, 교수의 역할로서의 연구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에서 교육은 제쳐두고 너무나 연구를 위한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교수의 임용부터 재임용과 승진시 강의와 학생지도 실적과 능력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연구 업적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들어가기란 무척 힘들다. 고등학생 4명당 1명만이 일반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대학 입시가 힘든 만큼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초·중등 교육을 받는 동안 대학 입학이라는 지상최대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로부터 그 이외의 모든 것이 크나큰 아량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니 자녀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부모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큰 아량을 베풀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 동안 그들은 가정의 절대자로서 군림한다. 식단과 가정의 텔레비전을 켜는 시간까지 그들에 따라 결정된다. 더욱이 가정당 평균 자녀수가 1.6명으로 전에 비해 감소됨에 따라 그들은 가정의 명예를 위해 선출된 대타가 없는 독보적인 선수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들의 의식이 어떠한지는 '국민교육헌장'을 바꾸어 '고교교육헌장'으로 부르는 내용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찍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기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들은 참으로 많은 지도가 필요하거나 하는 것을 느낀다. 어느날 오후 회의가 끝나고 캠퍼스의 한 화장실에 가니 평소 존경하는 노교수님이 계셨다. 그런데 내가 들어서자마자 소변을 보고 계시던 교수님께서 "어디 잠깐 있다가 두고 보자."하시는 것이 아닌가? 짧은 시간에 그 동안 내가 잘

못한 것을 헤아릴 때 그 교수님 뒤로 학생들이 손에 유인물과 테이프를 들고 있었다. '아하, 내가 아니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느낄 때 나의 생각을 입증이라도 하시듯 "너희들, 유인물을 아무 데나 붙여도 되는가? 아무 데나 붙여도 된다면 학교에 게시판은 왜 있다고 생각하나? 더욱이 학생회장 선거 유인물을 붙일 곳이 없어서 화장실, 그것도 대변을 보는 매 칸칸마다 붙이나?" 그러자 학생들은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화장실에 유인물을 붙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대꾸하며 별 개의치 않고 유인물을 붙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의 당돌하고 공격적인 태도와 대꾸에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너희들, 나를 따라와." 하고 소리치며, 학생들의 대답에 망연자실하신 교수님을 뒤로 하고, 옆방으로 갔다. 그러나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며 어려운 것인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대학 캠퍼스는 낭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무질서가 판치고 있다. 교정 내에서의 자동차 과속 질주와 차도에서의 족구, 건물 벽의 벽화 도색, 캠퍼스 내에서의 음주와 고성 방가, 도서관내 책의 부분 부분이 찢겨져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시정될 일이 많으나, 학생들의 그러한 행동에 누구 하나 교육하고 싶은 소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그러한 것을 세대 탓으로 돌리고 포기한 듯하다. 아니 교수의 역할은 그와 같은 사소한 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크고 고매

한(?) 일을 하는 것이라 여기는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들은 그러한 것에 신경 쓸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날 화장실의 유인물을 모두 제거하고 돌아간 그 두 학생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며 효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사회로 배출되기 직전에 있는 이들 학생들의 마지막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가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지 않을까? 옛날 같으면 가정에서 해야 할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공교과에 대한 교육까지 해야 하니 말이다. 그러나 연구는 건고한 유형의 자산이요, 학생지도는 무형의 모래성과 같이 취급되는 오늘날의 여건에서 학생지도는 어렵게 느껴진다. 얼마 전 연구업적 부족 때문에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의 소속학과 학생이 일간지에 글을 투고하였다. 많은 메시지를 주시고 학생지도에 많은 열의가 있었던 교수님이 단지 연구의 양만으로 측정되는 교수평가제의 모순 때문에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다고 하면서 재임용 탈락의 아쉬움을 금치 못하는 글이었다. 교수가 최소한의 연구까지 게을리해서야 되겠느냐니,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일도 열심히 한다느니 하는 말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교육을 등한시 하더라도 연구에 치중해야 높이 평가받고, 학생들에 대한 지도보다는 교수 개인별 연구비 액수가 마치 교수 개인의 평가 점수처럼 인식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수

주사원처럼 대형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그 결과 학생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학생들을 소홀히 대하는 경향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전공 영역도 아니면서 갖가지 잡다한 프로젝트를 따오고, 이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수를 보면서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연구활동시 대학원생들에 대한 교육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극히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업무만을 시키는 교수를 보면서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자신의 학과 학생의 이름은 고사하고 얼굴조차 모르고, 나아가 자신이 맡고 있는 학년의 학생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까? 수강 신청에 필요한 도장을 맡기 위해 자기 과의 교수실을 방문하는 외에는 교수실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대학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어떤 학생들은 수강 신청 도장을 맡는 일도 동료에게 부탁하여 졸업할 때까지 강의 시간 외에는 개인적으로 자기 과의 교수님을 전혀 만나지 않는 학생의 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학생들은 그 이유가 교수님이 너무 바쁘고, 자신의 일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야기하더라도 별 도움을 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식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모처럼, 학생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교수만큼 처량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까? 더욱이 자신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는 교수만큼 본인의 역할을 망각한 사람이 있을까? 고등학교에서는 구조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다수의 학생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교사의 버림을 받듯이, 대학에서는 대학사회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학부 학생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교수의 관심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대학은 교수 아닌 연구원들과 대학원생 아닌 연구보조원들이 중심이 되는 연구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개를 90도 돌림에 따라 똑같은 교수나 교사는 모두 교육자로 분류된다. 교육은 教(teaching)와 育(guiding)의 합성어임을 고려할 때, 교육자인 교수의 역할은 전공교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제반 영역에 대한 지도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수는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강의와 학생지도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연구에 의해서 등급이 나뉘어진다. 교수들이 모이면 연구에 관해서는 열을 올려 이야기하지만, 학생지도

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무한경쟁 등의 용어가 종횡무진하는 가운데 대학에서는 연구라는 한쪽 날개만 활개를 치면서 무한히 성장을 계속하고, 교육이라는 다른쪽 날개는 더욱 더 움츠러들고 초라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가운데 균형을 잃은 두 날개를 가진 새에 올라타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는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못 걱정이 크다. ■

정철영/서울대 농업교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농업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농업교육학회 이사, 한국직업교육학회 이사, 한국진로교육학회 이사,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Predictors of students' career maturity in central Ohio high schools", "산학협동센터의 모형에 관한 연구",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체제와 실시 방법에 관한 연구" 외 다수를 발표했다.